

오미크론 급속 확산...45개국서 확인

덴마크·영국 등서 감염 급증 WHO 첫 보고 전 미·유럽 상륙 파우치 "델타보다는 덜 위험"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 감염자가 5일(현지시간) 전 세계 45개국에서 확인됐다. 오미크론은 이제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 발병하는 등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45개국서 오미크론 변이 나와...미국·유럽 전역서 확인=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 세계 45개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됐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확진자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NYT에 따르면 현재 미국 16개 주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됐다.

유럽의 경우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에 따르면 유럽연합(EU)과 유럽경제지역(EEA) 국가 30개국 중 17개국에서 오미크론 사례가 확인됐다. 영국과 스위스 등 비EU 국가들까지 포함하면 유럽 내 오미크론 확산 사례는 더 늘어난다. 이 밖에도 멕시코와 칠레, 브라질 등 중남미 지역과 말

레이시아, 스리랑카 등 동남아시아 등에서도 신규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남아공 이전 이미 유럽·미국서 오미크론 감염자 확인=오미크론 변이는 남아공이 지난달 24일 WHO에 보고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미국과 유럽 등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상륙했을 것이라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NYT에 따르면 미국 미네소타주(州)의 피터 맥킨(30) 씨는 지난달 23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의료 분석가이자 일본 애니메이션 '아니메'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맥킨은 지난달 19~21일 뉴욕에서 열린 '아니메 NYC 2021' 행사에 다녀온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 행사에 참석한 그의 다른 친구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됐다. 이후 그는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결과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로 확인됐다. 그가 코로나19에 걸린 이후 추가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되지 않은 이상 남아공이 WHO에 오미크론 변이를 보고하기도 전에 이미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이다.

앞서 네덜란드 국립공중보건·환경연구소(RIVM)도 11월 19~23일 채취된 샘플에서 오미크론 변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영국 스토클랜드

에선 아프리카 여행 이력이 없는 감염자가 9명이 나와 지역 감염이 의심되고 있고, 미국 하와이와 호주에서도 지역 내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파우치 "오미크론 변이, 델타 변이보다는 덜 위험"=오미크론 변이가 여러 곳에서 출몰하면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연구 결과도 속속 공개되고 있다. 현재까지 연구 결과로 볼 때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은 강하지만 중증 위험도는 덜하다는 분석이 힘을 실린다.

WHO에 따르면 아직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중 사망자도 없다. 파우치 소장 역시 이날 CNN에 출연해 오미크론의 심각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서도 "초기 징후로 볼 때 계속해서 입원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델타 변이보다는 덜 위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남아공의 의학 연구위원회도 오미크론이 기존 코로나바이러스와 비교해 증상이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오미크론이 기체를 떨치고 있는 남아공 가우텡주의 한 종합병원 의료진은 지난 2일 현재 이 병원의 942명의 환자 가운데 70%는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생명 살려” vs “신체자유 훼손” 백신의무화 치열한 찬반 논란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두고 치열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 BBC방송이 5일(현지시간)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요 논리를 정리했다.

백신 의무화 정책에 찬성하는 쪽은 무엇보다 백신이 '생명을 살린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우두법을 기반으로 한 백신으로 천연두를 종식하는 등 역사적 사례를 봐도 백신이 방역 성공의 보증수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예일대 의과대학과 제이슨 슈워츠 교수는 "높은 백신 접종률을 요구함으로써 개인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는 직접적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사례가 많다며 "백신은 효과가 있다. 분명히 효과가 있다. 증거는 많다"고 강조했다.

백신 찬성파는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의무화'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BBC에 따르면 유럽 내에서도 포르투갈은 접종률이 88%에 이르지만, 불가리아(26%), 우크라이나(27%), 러시아(39%), 루마니아(39%), 크로아티아(48%) 등은 접종률이 50%

에도 미치지 못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백신을 갖고 있다.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반면 반대론자는 백신 의무화에는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인간의 고유한 신체의 자유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공공보건 연구소의 바키사자인 박사는 "학계 등에서는 단순한 방역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몸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한다"고 말했다.

반대론자는 또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만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도 주장한다.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대학의 보건심리학자인 바버라 유엔은 "위험 평가상 백신 접종률의 위험이 크지 않은데도 접종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걱정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스메루 화산 폭발 사망·실종자 23명으로 늘어

인도네시아 자바섬 동부에서 지난 4일 발생한 스메루(Semeru) 화산 폭발 사망자와 실종자가 23명으로 늘었다.

6일 인도네시아 국가방재청에 따르면 스메루 화산 분화로 산기슭 마을 주민 최소 14명이 화산·질석 등으로 숨지고 9명이 실종됐다. 사망자는 14세~50대까지 다양한 연령에서 발생했다. 실종자들은 접근 도로와 통신이 끊긴 한 마을 주민들이다.

또, 부상자 100여명 가운데 50여명이 병원에 입원해 화상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2시50분(현지시간)께 스메루 화산이 폭발하면서 최대 11km 거리까지 뿜어져 나온 화산재가 인근 11개 마을을 뒤덮었다. 용암과 가스 분출 여파로 가옥 약 3000채와 다리, 도로, 교육시설 등이 파괴됐다. 기상 당국은 "최근 이어진 폭우와 강풍이 스메루 화산 분화를 촉발했다"면서 "지난 1일까지 분화구와 경사면에 비가 계속 내려 화산 돌 붓기로 산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계속 내리는 비로 화산재가 진흙으로 바뀌어 수색 구조팀이 난항을 겪고 있다. 주민 1300여명이 긴급히 산 아래 임시 대피소 등으로 피신했으나, 일부 주민은 재산을 지키고 가족을 돌보아야 한다며 당국의 대피 권유에도 집에 남았다. 당국은 집에 남은 주민이 언제든 대피할 수 있도록 트럭과 오토바이를 주변에 대기시켰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스메루 화산 분화 후 생존자를 속히 찾아내고, 이재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당국은 임시 대피소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2만개를 배포하고, 식량과 옷가지 등 구호품을 지원했다. /연합뉴스



지난 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주 루마징에 있는 스메루 화산이 폭발하면서 거대한 화산재를 분출하자 인근 마을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우주능력 속도 美 두배...뒤처질 우려”

미국 우주부사령관

“10년후 미국 앞선 강국 될 것”

중국의 우주 능력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어 조만간 미국을 앞지를 수 있다고 미국 우주사령부 고위 장성이 우려했다.

데이비드 톰슨 미 우주사령부 부사령관은 5일(현지시간) 포크뉴스에 출연해 중국의 우주 작전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위험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톰슨 부사령관은 중국이 미국의 두 배 속도로 우주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며 만약 미국이 자체 우주 작전 접근법을 조정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중국이 미국에 앞선 우주 강국이 될 수도 있다며 이갈

이 경고했다. 그는 현재 미국이 여전히 우주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중국이 미국보다 두 배나 더 많은 위성을 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들은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그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 접근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두고 중국에 극도의 위협감을 드러낸 미 당국이 우주 능력에까지 중국에 뒤처질 수도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어 톰슨 부사령관은 "중국은 우주에서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로켓들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전파방해 및 레이저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며 "그들은 사이버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중국의 우주에서의 위협 상황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중국 CCTV “플로이드 사건은 미국식 인권의 위선 벗겨”

중국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민주주의의 정상회의(9~10일)를 앞두고 연일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 4~5일 베이징에서 120여개 국가와 지역이 참가한 '민주: 전 인류의 공통가치' 포럼을 열고 보편적인 민주주의의 모델을 옹호하며 미국식 민주주의를 강요하는 미국을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도 지난 5일 '민주상황'이라는 제목의 미국 정치제도 문제를 분석한 장문의 글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국무원 신문관공실도 '중국의 민주'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간해 각국의 현실에 맞는 제도가 가장 민주적이라는 주장을 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당국의 공세에 발맞춰 6일 일제히 미국식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관영 중앙(CC)TV는 이날 논평을 통해 "미국식 민주주의의 병세가 심각해진 것은 분명하다"며 "이는 미국이 곧 개최할 이른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더 황당하게 만드는 대목"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CCTV는 "플로이드 사건은 미국식 인권의 위선적인 배일을 벗겨 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치인들이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가장하게 열여 국내 갈등을 환기하고, 대외 영향력을 회복하려 하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10호 TEL : 02 - 2029 - 6400 ~ 3